

# 이 부처님 법 배우려면 모든 것을 한군데다 뭉쳐놔야

13면에서 계속

어 있는 의식들은 수십억의 의식들입니다. 제 가깝. 어느 한 공장의 직원들처럼 말입니다. 간 공장, 소장 공장, 대장 공장, 신장 공장, 방광 공장, 콩팥 공장 어디 뭐, 공장을 들이대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공장 속에서 중생들이 작용을 해 줘야 이 사람이 움직 거리게 돼 있고, 사람이 살게 돼 있고, 생각을 하게 돼 있고 '아,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바로 이런 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것이지, 독단적으로 내가 나라고만 한다면 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은 어떡하고요? 모습도 천차만별이고 의식들도 천차만별이고 그런 의식들을 어떻게 다 커버해서 한마음으로 뭉쳐 놓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남을 의심하지 말고 또는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증오하지 말고, 한 식구라도 미워하지 말고, 미우면 거기다가 맡겨 놓고, 내 깊은 내면 속에다 맡겨 놓고 부드러운 말 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 주시란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대로 반영이 되고 그대로 그쪽에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전력은 다 똑같으니까요. 전구는 다 달라도 전력은 다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서 불을 켜는데 어찌 그쪽 마음에서 불을 안 켜겠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불이 켜지면 다 같이 한방에서 살 수 있듯이 우린 밝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내 마음이 컴컴하면 그것이 암흑이고 지옥이지 어디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천당이니 지옥이니 승천이니 하는 것도 바로 이 자립입니다. 자기네들이 마음먹고 결정지어 놓고 결정 지을 게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하나도 결정 지을 게 없는 게, 공했다는 사실입니다.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말하는 거나, 가고 오는 거나 만남이나 어느 거 하나 공하지 않은 게 없어요. 고정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으니 어떤 거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공했다는 애깁니다.

부처님이 이러한 법을 일러 주시고 길잡이 노릇을 하셨지, 그분도 고깃덩어릴 민으라고는 안 그러셨습니까. "네 마음부터 깨쳐야 내 마음 알 수 있느니라. 내 육신을 보고자 하고 매달리고 그러지 말고 네 마음부터 바로 발견하라." 이러셨습니다. 이 마음과 마음은 체가 없는 거라 우주 바깥에도 나갈 수 있거니와 지구 바깥에도 나갈 수 있고, 아무리 천리만리

멀다 하더라도 한 찰나에 오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처님 도리를 배우려면 진짜로 모든 걸 한군데다 뭉쳐 놓지 않는다면 아니 됩니다. 모두 놓지 않고는 모두 얻을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은 한번 이렇게 태어나면은 한 철 살다가 고만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 철 동안에 이 몸을 열반경지에 이르기까지, 살아 있는 이 몸을 가지고 해야 열반이지 큰스님네들이 죽어서 열반이 아닙니다. 죽는 게 열반이 아니라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예를 들어서 나온 새가 없기 때문에 갈 곳도 없다 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이름입니다, 열반이.

이런 거, 내 몸속에 하나하나의 세균 중생 모두가 나 아님이 없다는 생각 해 보셨습니까? 한쪽만 기울어졌어도 이 집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물 한 그릇을 먹고도 그것이 오줌이 됩니다. 또, 이렇게 바깥입니다, 자꾸. 또 다른 게 먹고 또 일부분이 되고, 또 증발하고 또 일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

침 주시길 바랍니다.

답) 한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습시다. 그래서 풀 한 포기 버리지 않는 한마음이라는 것은 한 생명과도 같은 한마음입니다. 위로는 한 마음을 모시고 아래로는 여러분 몸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들어 있는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육신 속에, 세포 속에 들어 있는 그 생명체들을, 그 모습들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생명체들, 모습들도 아실 겁니다. 그러기에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있는 내 몸은 그 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이 움직여줘야만 움직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같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평하게 평등하게 시공이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잘 나찰나 움직여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겠죠. 이것은 잘 생각을 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래야 믿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몸은 자기가 소임을 맡은 대로 움직

다. 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 없다 함은, 하늘을 받칠 불기둥이 있고 한 발로 디뎠다면 그것은 그대로 밝기 때문에, 그대로 자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여하며 그대로 삶과 죽음이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 그러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멀리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 육신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거는 한 별성이기 이전에 흑성이기도 합니다. 그 흑성 안에, 오대양 육대주가 돌아가는 거와 같이 오장 육부가 그러하니깐요. 이것을 가까운 데 두고 모른다면 우리는 우주의 전체, 무(無)와 유(有)의 세계의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한다면 남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나를 이끌어 가지 못한다면 남을 이끌어 줄 수 없습니다. '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생겼고 상대가 생겼고 가정이 생겼고 나라가 생겼고, 천태만상으로 생긴 것이 바로 나로 인해서 생겼다는 그 사실

수익권 개념을 거쳐 오면서 우리는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쫓기며 쫓으면서, 밝히며 밝으면서 인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서 이 모습을 벗기 전에 알아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이죠. 우리가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 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 까르마 즉, 업이 되어 쌓인다고 들었는데 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산 부처님이 계셨는데 어느 신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나쁜 일도 안 하고 죄 지은 일도 없는데 어찌 이렇게 가난하고 애고가 많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모든 게 닦치느니라. 또한 지금 어떻게 살고 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또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이 짓는 것은 모든 게 마음 놀음이니깐,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사람을 나쁘게도 하고 사람을 좋게도 하는데 판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주위의 사람들이 모르니까 모르는 건 줄 알지 마세요. 모든 것을 내 마음속의 그 여러 의식들이 알고 있죠? 알고 있는 반면에 모든 우주의 법계에 전부 통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이 생기고 인과응보가 생기고, 또는 영계성이 생기고, 즉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게 물질, 마음, 의식 이런 거하고 정보가 되면 영계성이 되지요. 인연의 영계성.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업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업이 되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나쁜 업이 된다. 악업이 되고 선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끄달리지 마시고, 어떠한 업이든지 어떠한 고통이든지 다 자기 근본 자리에서다 놔야 그것이 바로 자기발전소에 낚서 모든 게 타 버리는 거와 같아서 업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어떠한 것도 나오는 대로 공부 재료로 삼아 근본 자리에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 풀 한 포기 지렁이 하나도 나 아님이 없다는 걸 안다면 어찌 남을 증오하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닙니다. 하다못해 풀 한 포기, 지렁이 하나도 나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안다면 어찌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러겠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애깁니다.

가정에서도 다복하고 또는 화목하고 모두가 슬기롭게 넘어가려면, 그리고 이 도리를 배우려면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하고 싱긋이 한번 웃고 거기다 놓고 부드럽게 말해 주면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저렇게 부드럽게 나오니 아이, 인젠 내가 이리저리 말아야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나의 한마음 속에 모든 걸 집어넣는 이 마음공부로서 그 맛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 위로는 한마음을 구하고...

문) 위로는 한마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자생 중생들을 제도하도록 스님께서 가르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뜻이 좀 막연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가르

치면서 이 한 몸을 앞장세웠습니다. 모든 모습들과 마음들이, 위로는 마음들이요 아래로는 그 모습들이 전부 한데 모여서 움직여주는 그 역할을 그대로 우리는 한데 합쳐서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마음 중심(中心), 중용(中庸), 중도(中道)라는 이름이 있기 이전, '깊은 정(定)에 들어 죽은 내 몸이여! 그대로 나뉘며 시공이 없이 도는 몸이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위로는 일체가 되고, 한마음이 되고, 한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몸 아님이 없고, 내 이름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이렇게 됩니다. 공식(供食)하고 있고, 공생(共生)하고 있죠. 공용(共用)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심, 중용, 중도의 정(定)에 든다면, 정에서 나오는 거 정에도 도로 놓는다면 그 씹음이 바로 유용하고 여여하고, 천 가지 만 가지에 부딪치지 않고, 시공이 없고, 윤회에 걸림이 없고 생사에도 걸림이 없습니다.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빙그레 웃고 죽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도 사는 것이 아닙니

다. 여러분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데도 위로는 한마음이요, 아래로는 모습이 한몸이니 아픔도 한몸입니다. 그래서 유마힐 거사는 문수보살이 병문안을 가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생들이 나야 내가 낫지." 했습니다. 간단하게 비유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장 육부의 세포의 생명들이 나야, 그 모습들이 건강해야 나의 모습도 건강하겠죠. 내 마음이 건강해야 나의 마음도 건강하게 해 줄 수 있고, 내 몸이 건강해야 나의 몸도 건강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름이나 찾고 허공이나 바라보면서 바깥 경계에 끄달리는 것이 불법이 아니며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이 아닙니다.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자든 막론하고 이것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있다는 사실, 그 마음으로 인해서 움직여진다는 사실, 그리고 맛을 본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만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 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 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중,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388번지>

## 64형으로 나누어서 본 나의 체질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사람을 보면 부모로부터 받고 태어난 체질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병의 원인을 시원하게 가르쳐주고 병증이 있으면 체질에 맞게 체질한 약차를 드시면 5일안에 본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체질은 무얼까?  
나에 맞는 음식, 맞는 과일, 맞는차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전화주세요!

스님들께는 모든 특혜를 드립니다

상담연락처 010-9373-3778